

장애 여성과 폭력

-장애도 멸시도 없는 세상에서- 상영

영상상영

- 장애도 멸시도 없는 세상에서 -

회차연계

장애 여성과 폭력 ----- 2003. 10 박연희,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장애 여성과 인권 -----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회차연계 -----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크리

장애 여성 공감

순서

사회 배복주(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

영상상영

- 장애도 멀시도 없는 세상에서'

토론발제

장애여성과 폭력----- 박영희(장애여성공감 상임대표)

장애여성과 빈곤----- 류정순(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최옥란 열사의 삶과 투쟁----- 유의선(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토론

장애여성과 폭력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상임대표)

시작하며

가부장적이고 힘과 권력관계의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구조는 유구한 역사 속에 여성과 아동과 노인 등의 사회의 소수자들은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일방적인 침묵과 인내를 강요당해 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외면되어 왔었다. 이처럼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디에서고 장애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하여 논의된 적은 없었다.

올해 장애여성공감에서 장애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테마로 교육과정 중에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한 강의도 있었고, 『남성의 폭력성에 관하여』¹⁾란 책을 읽고 회원들간의 세미나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여성들과 비장애여성 회원들이 자신의 폭력의 경험들을 어렵게 드러내고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폭력에 대하여 말을 한다는 것과 자신의 폭력의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와 힘든 작업이었고, 그러한 작업은 자신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공감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회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먼저, 비장애여성의 역사에 폭력은 어떻게 인식되고 가해져왔는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장애여성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폭력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또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말하기 전에 장애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후에 장애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폭력들을 살펴보고, 장애여성들이 폭력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미셸 하웨이, 제임스 M, 오닐 엮음, 김태련 김정휘 옮김, 이화여대출판사, 2002.

1.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의 역사

이제는 진부한 말이지만 '여자와 북어는 사흘마다 패야한다.'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통념 되어 온 것만 봐도 폭력이 여성에게 어떤 역사를 주고 있었나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일이다. 남성들이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었고,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는 여성이 폭력에 민감성을 무디어지게 하였다. 여성은 이러한 폭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폭력에 저항할 의지를 상실하기도 하고 여성이 여성에게, 엄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자는 말로 자기 마음을 설명해내는 것이 서툴러서 그러는 것이니 여자가 이해해줘야 한다'는 남성의 논리를 전수시켜 오기도 했다. 그래서 여성은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또한 주변 남성들로부터 물리적 폭력과 성폭력, 무시와 멸시적인 언어 폭력들을 당해 왔었다. 여성들의 인내로 감수해온 남성들의 폭력은 여성을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였고, 자신이 여성을 군림하고 관리하는 것에 정당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지만 여성은 언제나 힘과 권력에 폭력을 당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전복하는 혁명을 이루지 못했다. 그만큼 남성은 단 한번도 자신들의 폭력을 인정하는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쟁 영화에서 또는 문학과 역사책 속에서 침략자들이 벌이는 여성에게 가하는 강간의 모습과 알콜 중독과 노름으로 생활하는 남편에게 언제나 구타당하는 여성의 모습은 고전에서부터 쉽게 그려져 왔다. 이러한 장면들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침략자는 침략한 나라의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함으로써 적국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나라의 남성들에게 수치심을 주고자 했다는 오래된 남성의 지배방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몇 백년 전의 전쟁에서도 그랬었고, 현재도 민족이나 종교적 무력분쟁 속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쟁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남성들이 평화롭다고 말하는 대낮의 길거리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매매와 차별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식처라는 가정에서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이, 비장애여성도 남성에게 보호를 받고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이상 남성은 보호와 가르침의 명목으로 폭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여성운동의 결과로 많은 법적,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법해석과 공권력은 가정폭력을 '남의 가정사'로 치부하여 위기 상황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속에서 여성은 계속 고립되고 있다. 가정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힘한 사회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곳'이라는 신화로 인해서 계속 폭력의 피해여성을 머무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2. 장애여성의 현실

이러한 비장애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을 장애를 가진 여성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여성이 이러한 경험을 하는 원인 중, 장애여성이 처한 사회적 위치가 그 취약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여성이 장애여성이라고 불리어진 것도 불과 6-7년, 그 전엔 장애여성이라고 명명되지도 않은 채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여성운동 안에서도 장애인의 문제로 논의 밖에 있었고, 장애인 운동 안에서도 장애여성 문제는 운동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곤 했었다.

이제 장애여성의 현실을 보자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는 사회 정화적인 천사 모습에, 만년 소녀적인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다. 언제나 존중을 못 받고, 장애여성의 의사표현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놓여짐으로 많은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문열의 '아가'에서 당편이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은 이 여성을 통해 인간이 마치 원죄에서 벗어나 착한 인간성회복을 느낀다고 실토하고 있고, 이창동감독의 '오아시스'에서도 공주는 사회 '부적응자'와의 사랑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잃어 가는 순수한 사랑으로 간직한 아련한 그리움을 만드는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이처럼 많은 시선들이 장애여성이라면 마치 순수한 뭔가를 가졌을 것만 같은 순결하고 신비스러움을 가진 여성으로 이미지화함으로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규정한다.

장애여성에 대해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2000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8%가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다. 남성장애인(41.4%)과 비교해 볼 때, 장애여성들이 현저하게 낮은 학력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2000년 전국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국사회연구원)

장애여성	68%	장애남성	41.4%
------	-----	------	-------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2년에 낸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의 조사에 보면 고등학교 학력이 29.9%로 가장 많으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장애여성도

11.1%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무학 초등학교 학력은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역시 장애여성의 학력은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도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장애여성의 학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애까지 가진 딸을 힘들게 공부시킨다 해도 비장애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권력구조에 끼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애 때문에 학교에 접근할 수 없는 많은 현실들이 있다. 우리나라 정규교육의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편의시설 부족과 비장애인중심의 사회적 구조, 또한 장애유형에 맞는 개별 교육의 전무함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뿌리깊은 차별 인식은 통합교육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 이것으로 인하여 부모들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먼 특수학교를 찾아 이사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부모의 희생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어머니의 희생이 강요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를 가진 딸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 앞을 나설 수조차 없는 장애인의 이동이 보장되어있지 않은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러한 것은 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취업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교육이 장애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개발'에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장애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은 판매, 서비스직(33.3%)이며 생산, 노무자(25.5%) 취로사업(22.5%)로 나타났다. 근로형태로는 일용직 근로자가(29.1%)로 가장 많으며 자영업(17.4%)로 나타났다.

'2002년 재가여성장애인욕구조사 및 프로그램개발'(서울시정개발연구원)

판매, 서비스	생산, 노무자	취로사업	일용직	자영업
33.3%	25.5%	22.5%	20.1%	17.4%

같은 연구자료에 나타난 소득정도를 살펴보면 앞의 흐름이 장애여성이 어떤 악순환 속에 놓여져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50만원 이하가 59.4%로 과반수를 넘으며 100만원 이하까지 합하면 전체의 86.8%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 저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다. 50만원 이하 저임금은 특히 정신장애(85.7%),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71.4%), 뇌병변(70.0%)의 순으로 보다 높다.

‘2002년 재가여성장애인육구조사 및 프로그램개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신장애	정신지체및발달장애	뇌병변
85,7%	71.4%	70.0%

이와 같은 조사가 말해주듯이 장애여성의 현실은 낮은 학력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사회적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대안은 없다.

3.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사회나 가정에서 장애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본다면 이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장애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장애여성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성폭력은 이제야 겨우 장애여성전문성폭력상담소라는 사회적인 책임으로서의 대안이 나온 지경이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장애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터도 태부족하여, 성폭력 당하고 위급 상황에 놓인 장애여성이 피할 수 있는 곳과 치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없다. 그래서 피해장애여성을 가해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물론 장애여성의 가정폭력도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태로 심각하다. 유아 때 장애를 가지게 된 여성들이나, 성인이 된 후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나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현실은 더 이상 간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실정이다.

1) 가정폭력

한 가정 안에 장애인이 발생하면 그에 따르는 교육과 재활과 사회화는 온전히 가족들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실에서 장애를 가진 딸에 대한 지원을 가족들이 담보해내지 못하면 장애여성은 가정 안에서 고립되고 방치 되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의존적인 상태로 살아오던 장애여성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본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독립을 꿈꾸어보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꿈은 꿈으로 끝나고, 끊임없는 자아상실을 경험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낮은 학력과 장애가 중증일 경우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무시와 소외의 폭력을 가하더라도 어떠한 저항도 할 수가 없다. 또한 딸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봤자 장애 있는

여자가 될 할 수 있겠냐는 부모들의 생각이 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

다른 자식들에 비해 부모에게 보람을 주지 못하는 장애 딸에게 부모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설마 장애까지 있는 딸에게 부모가 얼마나 심하게 할까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례 1>

정순미(가명, 28세, 뇌성마비)

딸 둘 중에 막내딸로 태어난 순미씨는 아버지가 알콜중독이다.

밤만 되면 아버지는 술이 취해 들어와서는 온 식구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폭력이 무서워 어머니와 언니는 도망가면 아버지는 칼을 들고 모두 죽인다고 저주를 하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녀는 공포로 떨어야 했고 아버지가 그녀를 발견하면 머리카락을 움켜지고 이리 저리 휘저었다. 그녀는 말했다. '제발 자기 몸이 적어졌음 좋겠다'고 아버지에 발견되지 않도록 말이다. 아버지가 날뛰다가 잠들 때까지 그녀는 숨도 쉴 수 없었다.

그런데 밤엔 아버지가 무서웠다면, 낮엔 엄마가 조금만 화가 나도 그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어 댔다. 아버지가 알콜 중독이 된 이유가 사업에 실패해서고 그 실패의 이유가 순미씨가 태어나 재수가 없어서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 무관심한 언니는 자기만 집에서 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사례 2>

방숙이(가명, 35세, 척추만곡증)

6세 아들 한 명을 두고 있고 남편은 비장애남성이다.

자원봉사자로 만나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하자 시가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둘은 동거 상태로 들어갔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아들을 데리러온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병신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남의 집안 망칠 일이 있느냐. 뱃속의 애도 병신을 낳으면 어쩌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말했다.

이 후 남편은 시가에 가지 않았지만 시가는 지금도 시골에 맞선을 보라는 연락이 온다. 아들은 시어머니가 키우겠다고 강제로 빼앗으려 온다고 하고.....

그런데 남편이 2년 전부터 작은 일로도 버럭버럭 화를 내고 뭐라고 말만하면 감히 말대을 한다며 아이와 그녀를 차고 때리기 시작한다. 자기 얼굴과 온 몸에 멍드는 것은 참겠지만 아이까지 멍드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고 호소해 왔다.

위의 사례는 극단적인 것만을 예로 보였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여성들이 크고 작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중도에 장애를 가지게 된 장애여성들도 남편과 자녀들 시가의 무시와 폭언을 듣기도 한다. 심지어 장애를 가지게 된 아내와 위자료를 안주고 이혼하려고 의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말하면서 고문을 하고, 또는 진단서가 나오지 않게 폭력을 휘둘러 장애여성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악랄한 남편도 있다.

물리적 폭력도 크지만 가족들의 무시와 경멸, 소외의 폭력은 장애여성을 점점 소멸시키는 큰 폭력이 되기도 한다.

2) 성폭력

장애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여성이기보다 성이 없는 존재 즉 무성적(無性的) 존재로 살아왔다. 여성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가사, 보육, 성, 남성에게 각종 서비스)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여성들은 사회에서 말하는 여성이 아니었다. 여성이 해내야 하는 역할은 남성의 내조자로 성적서비스 제공과 가사전담과 출산에 따른 육아보육 등으로 이를 해내지 못하면 여성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여성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장애여성의 성이 폭력 앞에서는 폭력의 대상이 된다.

2000년 장애여성공감에서 외부에서 처음 한 행사가 있었다. 강릉 음촌리에서 일어난 '정신지체여성에게 가해진 7년 간의 성폭력사건 토론회'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이장 할아버지로부터 당하기 시작한 성폭력은 7년 간이나 계속 되었고, 이 사건에 장애여성공감은 공대위에 적극 참여를 하였다. 집회를 가기 위해 강릉으로 가기도 했었고 진정성도 쓰고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본격적인 장애여성성폭력 사건을 표면화시켜내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장애여성공감에서 장애여성 서울 경기지역 165명의 장애여성을 '장애여성 성인식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장애여성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대부분 외출조차 하지 않는 문혀 살고 있는 장애여성들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이러한 작업이 길지 않아서 시설에 있는 장애여성들과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는 회원들과 그래도 사회 활동을 한다는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성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폭력 경험 및 조치'(장애여성 성인식 실태조사'자료집 p47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성폭력경험이 20%로 었다. 이러한 폭력에 긍정적 대처능력도 놀라울 만큼 높게 나타났다. 물론 연령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지만 '참는다'75.0%라고 응답한 연령은 40대였다. 반면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다'38.5%는 10-20대였다.

어느 정도 사회 활동하는 장애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보와 학습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제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에 나타난 성폭력대처 방안에서는 '참는다. 도망친다'가 67.5%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이유는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한지 2년여가 되어가면서 장애여성 문제의 현장을 본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여성들에게 누가 성폭력을 할까'라고 말한다. 하지만 장애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여성들 경우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네 남성들에게 성폭력의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 놀라운 것은 가해자들과 주변인들은 장애여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웃은 '모자란 여자에게 무슨 인권이냐'하면서 가해자옹호를 하며 피해장애여성과 가족들에게 제이차 가해를 서슴없이 가하기도 한다.

성폭력 사건화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 피해장애여성이 정신지체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지체장애여성과 다양한 장애유형 장애여성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건화 시켰을 때 피해 여성이 받게 될 피해가 두려워 상담만 하거나 표면화시키지를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참는다. 도망친다'가 맞는 것이다.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현실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장애여성의 현실은 장애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들을 경험하면서 이를 당연한 것으로, 운명처럼 살아오게 했다.

3) 일상의 폭력

장애여성은 가정에서 밖에서 매사가 폭력의 연속선에 놓여져 있다.

이동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남성들은 물론이고 나이 많은 비장애여성들도 서슴없이 머리를 만지거나 얼굴을 만지기 하는 폭력이 일어난다. 남성들은 친근함이라면서 성희롱적인 반말과 농담을 일삼으면서 긴장과 존중감 없이 사생활을 침해해 오기도 한다. 나이가 어리거나 중증 장애를 가진 여성일수록 이러한 일들이 잦아 장애여성들은 온몸에 긴장을 하며 다니게 된다.

<사례 3>

김소정(가명, 30세, 근이양증)

차량봉사자가 모임에 데려다 주기 위해 소정씨 집으로 왔다.

"오늘은 더 이쁘게 차렸네" 이렇게 반말로 시작했다. 차에 태우기 위해서 그녀 앞에 선 체 하는 말 "이거 가슴이 설레어서 어떻게 안나... 내가 꼭 안아 줄게"라고 한다.

모임을 안 가겠다고 하지도 못하고 차에 탔다.

"소정씨는 향기가 참 좋아, 머릿결 냄새도 좋고."

차안에 나란히 앉아서 그런다. 또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데도 앞으로 넘어지겠다고 자꾸 가슴에 손을 댄다. 괜찮다

고 해도 들은척 하지도 않고....

성폭력이라고 말하면 장애인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라고 테고....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단다.

외출을 하려면....

'아가씨, 결혼했어?'

'남편은 뭘 해?'

'애는 낳을 수 있나?'

'이쁘게 생겨서 남자 하나 잡으면 되겠네'

4) 시설폭력

-피해여성들

2000년 최경아/대구영남보육원 원생 /피살

1997년 최미선 /에바다/피살

1994년 곽은미 /에바다/실종

1992년 오미숙/ 에바다/구타사망의혹

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여성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시설들, 그 안에서,('소쩍새마을' 등등) 인권의 사각지대 같은 그 속에서 죽어가야만 했었던 이름 없는 장애여성들이 있다. 그러나, 시설을 나오면 오갈 곳이 없기 때문에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비리 시설 드러나면 어김없이 장애여성의 성폭력이 나온다. 시설의 탈세나 폭력 당한 사례들이 나오지만 성폭력 당한 장애여성들에 대한 치유나 대책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사회 문제화시키면서,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장 핵심에 있는 시설의 폭력을 빠른 시일 내 드러내고 장애여성의 인권회복을 해야 한다.

끝을 내면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특성 중 하나는 같은 여성인 어머니, 자매간에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가정 안에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어머니 자매의 분노 표현이 가장 힘없는 대상인 장애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 안에서나 시설 안에서 폭력을 당해도 장애가 중증일수록 참으며 살 수 밖에 없다. 어디

에 갈 곳이 없고, 선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장애여성의 현실에서, 특히 정신지체여성들은 그녀들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성매매의 현장으로 유입되어지고, 그 곳을 탈피할 의지도 상실하게 된다. 그 곳 역시 장애여성이 나온다 해도 돌아갈 곳이 없다는 현실은 역시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여성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사회에 분노하지도 못하고, 모두를 자기의 운명으로 끌어안고 수용하려고 하다보니 우울증과 무력감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우울증과 무력감은 또한 몸으로 후유증을 나타내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성폭력을 당하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가슴속에 묻고 살던 장애여성은 끊임없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대안 공포증으로 사회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후유증을 보이기도 한다. 신체적 증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가출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신과 치료를 지원하고 보면, 장애여성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의는 무척 난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 피해 장애여성들을 위한 전문치료 프로그램도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장애여성들이 힘을 키워서 폭력에 끊임없이 말하고 사회인식을 바꿔 가는 운동을 해야만 한다.

정책적인 대안은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에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장애여성에게 맞는 정책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장애여성에 가해지는 폭력이 얼마나 한 여성의 전인격을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깊게 인식만 한다면 말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금 아무리 말해도 정책전문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무관심이 또 하나의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되는 것이다.

장애여성은 장애여성에게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인지 잘 알고 있다.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녀들의 폭력 경험의 언어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린 얼마나 피해장애여성에게 힘을 주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hall mean)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or any other field)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irrespective of their marital status)

남녀동등의 기초위에서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여성이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by women)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which has the effect or purpose of impairing or nullifying)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restriction made on the basis of sex)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장애여성과 빈곤문제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http://poverty21.com.ne.kr>

I. 들어가며

장애인을 위한 교육제도의 부실로 인하여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제대로 개발할 기회를 얻지 못함. 설령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출근조차 어려운 도로와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여성과 장애의 이중의 벽에 갇혀 있는 장애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뿔뿔하게 일하고 그 대가로 얻은 소득으로 남부럽지 않게 가계를 꾸려 나가는 정말 하늘에 별따기 임. 특히 IMF 이후 절대빈곤 인구는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KDI, 2003), 올해는 경기악화와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생계형 자살이 줄을 잇고 있음. 빈곤문제는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 쉬운데, 가정경제가 다급한 상황으로 치다르더라도 장애여성은 사실상 시장노동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애여성은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기 십상이며, 심한 경우에는 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됨.

200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2.8%임.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가구 중 장애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4.2%에 이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58%가 여성. 장애여성에 대한 통계자료는 생산되고 있지 않음. 전체 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61세 이상 노인여성의 비율이 47%이고, 전체 65세 이상 여성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8%인 점으로 봐서 늙어감에 따라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장애여성 노인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고 있음(복지부 보도자료, 2002).

장애여성의 빈곤은 장애여성이 키우는 자녀의 빈곤으로 연결되어 빈곤의 세습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장애여성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대단히 열악함. 영국은 1993년의 경우, 편모소득의 63%를 국가의 급여에서 얻고 있으며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하여 모자보호제도가 열악한 미국의 모자가정이 공적부조제도인 TANF를 통해서 받는 소득은 전

체 모자가정 평균소득의 61%. 일본의 모자가정이 아동부양수당을 통하여 받는 소득은 모자가정 평균 소득의 26%(일본후생성, 후생백서, 1997). 그러나 한국은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겨우 명목만 유지할 정도로 쥐꼬리만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라는 것이 평균 2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모자가정 전체 소득 중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은 형편없을 것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통계자료가 없음. 여성이나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가늠할 통계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장애여성의 삶의 질을 가늠할 자료가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는 장애 여성 정책이 없다는 보니 정책에 참고할 기초자료가 없고, 기초자료가 없다는 보니 정책도 없는 실정.

특히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최저생계비가 일반인보다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득보조 프로그램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장수준이 일반가구와 같기 때문에 설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정부에서 주는 급여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 그나마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는 다행인 편. 전체 8백만 빈민 중에서 135만명이 겨우 쥐꼬리만한 급여라도 받으나, 나머지 665만명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

참여복지를 정책기조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인간의 얼굴'을 한 복지정책을 펴서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은 계층인 장애빈곤여성이 정책입안에 참여하게 되고, 장애빈곤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장애여성의 삶의 질 개선이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기대했음. 그러나 참여정부는 빈곤의 늪에서 신음하는 장애여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람 살릴 돈을 사람 죽이기 위한 무기구입에 쓰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임.

본고에서는 한국의 장애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을 살펴본 후, 장애여성빈곤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한국의 장애여성 빈곤 정책 현실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등 어떤 한국 정부기관에서도 장애여성의 빈곤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지 않음. 이는 바로 장애여성의 빈곤이 얼마나 정책적 고려의 대상 밖에 있는 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줌. 예컨대 도시가계조사자료의 천 가지가 넘는 문항 중에는 양배추와 피망 항목이 있으나, '장애여부를 묻는 문항'은 없음. 아마도 장애인의 삶의 질이 어떠한가는 일반인들이 양배추를 얼마나 먹는지 피망을 얼마나 먹는지 보 다도 중요하지 않은 모양임. 사정이 이러하니 빈곤장애여성 최옥란열사가 죽음으로써 장애여성의 생활상의 열악함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

III. 정부정책의 문제점

1. 노동시장 정책

장애여성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는 것. 그러나 노동부나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어떤 자료에도 장애여성의 실업율은 생산되고 있지 않음. 아마도 장애여성은 당연히 골방에 숨어서 살아라는 뜻인 듯. 정부에서는 장애여성의 근로능력 정도를 재는 어떤 척도도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른 모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듯함. 한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을 하면 일반인보다 더 우수한 산업역군으로 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음. 다만 이회야같은 손가락이 다 합쳐서 4개 뿐인 장애여성이 장애여성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우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을 뿐임. 장애여성도 인간이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번 소득을 식구들 앞에 내 놓고 기 펴고 살 노동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음.

2. 자활 정책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의욕도 있으나 사회에서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은 자활사업의 참여를 통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근간. 그리고 참여정부도 이 정책을 수용·개선해 나가겠다고 함. 그러나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4만 명에 불과한데, 이 중에서도 업그레이드(up grade)형 자활사업 참여자는 9천명에 불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 또한 50~60만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 자활사업은 명맥만 겨우 유지시키는 시범사업에 불과. 그나마 장애여성을 위한 자활사업장이나 재활사업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실정.

3. 상대빈곤 정책

국민의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IMF 극복과정에서 사회보험제도를 확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썼음. 그러나 급격히 악화되어 가는 시장의 불평등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 이 사실을 우리나라 통계자료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통계청의 가구소비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박찬용(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인 <표 1>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즉, 1996년~2000년 사이의 최하위 1/100계층

의 경상소득은 28.9%가 감소되었고 하위 2/100계층의 소득은 19.3%가 감소. 최하위 1~2%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장애여성의 상대적 빈곤이 불과 4년이라는 짧은 동안에 얼마나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는 지 이 자료가 잘 나타내 줌. 이에 반하여, 상위 1/100계층의 경상소득은 무려 77.5%가 증가되었고, 이 값은 상위 2/100계층의 소득증가율 29.2%보다도 월등히 더 높음. 사정이 이러하니 상위 1.6%의 소비가 전국민의 소비의 25%를 차지하는 소비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박순일, 2001).

<표 1> 최하위와 최상위 소득계층의 연간 경상소득 증감율(1996년~2000년)

	1/100 분위	2/100 분위	99/100 분위	100/100 분위
증감율(%)	-28.9	-19.3	29.2	77.5

4.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

시장의 불평등구조 조세와 사회부조정책을 통하여 완회되어야 소득재분배 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함. 그러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 한국의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약 7.9%. 이 값은 OECD국가들 중에서 스웨덴(1995) 52.9%, 벨기에(1995) 48.4%, 덴마크(1994) 48.3%, 독일(1994) 35.3%, 영국(1995) 24.5%, 일본(1994) 22.0%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낮음(현진권, 임병인, 2000).

<표 2> 조세 및 사회부조의 소득재분배 효과(1999년)

조세 및 사회부조 전 지니계수	조세 및 사회부조 후 지니계수	조세 및 사회부조의 소득재분배효과(%)
0.331	0.305	-7.9

5. 의료, 교육, 및 주거 정책

복지정책의 기초 인프라는 의료, 교육, 주거와 같은 공공재의 사회적 제공. 선진국들은 무상의

료, 무상교육이 일반화되어 있고,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 편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주력하여 장애여성 빈곤가정이 집이 없거나 주거비 과부담으로 인하여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배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의료와 교육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시장으로 나가 있고, 주택은 투기상품이 된 지 오래 됨. 1993년 이후에 전혀 영구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아서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장애여성이 많음.

6. 사회보험 정책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노인 및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장애인이나 노인들과 같이 장기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나 간병이 전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장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가운데 건강보험은 단기질환 위주로 설계되어 있음.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율이 높아서 가난한 장애여성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뿐만 아니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큰데, 대부분의 장애여성은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표 3>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2002년)

	국민연금	경로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혜율 및 수혜자의 수	경제활동인구의 52%(240만명)	72만명*	임금근로자의 52%	임금근로자의 80%

* 2002년 수급권자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경로연금이 402억원이 이룬다고 함.

7. 모성보호와 장애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를 위한 정책

전체 편모들의 총소득 중에서 국가의 공적부조를 통하여 얻는 소득은 영국이 63%(1993년), 미국이 61%, 일본이 26%. 그러나 한국은 전체 모자가정의 소득 중에서 공적부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없음. 만약 통계가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1%에도 못 미칠 것이 뻔함. 또한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이 키우는 자녀를 위한 아무런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없음. 사회적 양육 시스템이 전무한 가운데 자기 몸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는 여성이 키우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됨. 상황이 이러하니 장애여성은 결혼을 할 엄두도 못내고, 설령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을 할 엄두도 못내는 실정.

8. 노인복지 정책

우리 사회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8%를 넘어섰는데, 불과 19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인 노령사회로 진입할 것임. 지금은 전 사회정책을 노령사회대비체제로 운용하여야 할 시점. 그러나 제대로 된 노인복지 정책은 나오지 않고 공론만 무성.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연령은 2000년에 60세 이었는데, 해마다 한 살씩 상향조정되어 올해는 63세, 2005년에는 65세로 책정될 예정. 그리고 경로연금 수급대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노인연령은 65세이고, 일반저소득층은 70세. 이와 같이 노인연령이 예산에 맞추어 노인연령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인가?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은 아직도 노인의 개념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수준. 또한 장애여성노인, 여성만성질환자 및 장애여성의 간병부담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지움에 따라 귀중한 인적자원이 간병부담 때문에 시장노동을 못하고 가족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애여성노인의 인권침해가 심함에도 정부에서는 내몰라라 하고 있음.

9. 공공부조 정책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빈민은 8백만명 정도(류정순과 이상우, 2003). 그러나 대표적인 공적 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수는 135만명으로서 665만명에 이르는 수급권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수급권자를 사각지대에 방치시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지나치게 높은 간주부양비,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을 및 주민등록 등재지역 기준 적용. 설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옥란 열사가 죽음으로 그 열악상을 고발하였듯이, 생계보장 수준은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으로서 공적부조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IV. 마치며

우리사회는 적극적인 청구권을 보장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제도의 시행은 자선으로 간주되던 복지가 겨우 조건부 권리보장의 단계로 진입된 수준. 빈곤대책의 우

선순위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구조 완화 ->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 5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 장애, 노령, 양육, 등의 각종 수당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 그러나 어느 한 가지로도 장애인근여성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획기적인 장애인근여성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 셈은 목마른 사람이 파는 것. 장애여성단체의 맹렬한 운동을 기대함.

최옥란열사의 삶과 투쟁

- 수급권투쟁을 중심으로

유의선 (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생계를 비판한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가난한 민중들이, 자신의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기에 자식들까지를 동반하여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삶.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이 사회의 빈곤과 차별이 만들어놓은 것이기에 '사회적 타살'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최옥란 열사를 떠올리게 된다. 스스로 삶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기에 죽음을 생각했었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랬기에 현실과의 힘겨운 싸움을 선택했던 최옥란 열사. 그녀는 가난한, 장애, 여성으로서 자신의 당면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 정면으로 대면하고 투쟁한 사람이었다.

수급권운동의 시작, 최옥란열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그 부족분을 보충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기초법은 엄격한 기준과 낮은 최저생계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대부분의 빈곤계층은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저에게 정부는 월 2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시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해도 26만원을 넘는데..... 아파트 관리비만도 16만원인데..... 도대체 나보고 26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러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것인지? 처음에는 실무과정에서 착오가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성을 시작

하며, 2001.12.3)

최옥란열사는 수급권자였다. 단신가구였기에 한달의 최저생계비는 32만원이었으며, 현금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만원이었고, 최옥란열사는 1인가구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생계급여를 모두 지급 받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이었던 최옥란열사는 한달에 26만원으로 삶을 유지할 수 없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16만원이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가야하는 병원의 왕복 택시비만도 12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수급자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14.3%이다. 이는 전체인구 중 등록장애인이 3.3%인데 반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장애인수급자에 대한 보장 조치는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월 45천원의 장애아동보호수당, 재산의 기초공제액의 2배 기준의 재산특례제도가 전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는 보장구·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 등의 추가 지출로 인하여, 장애유형·등급별로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월 157,900원의 추가 생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최저생계비는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장애인가구가 (그나마 낮은)급여의 상당부분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지출함으로 인해,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급여를 받는 것이 된다.

더욱이 수급자 중의 대다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나마의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2003년 현재 102만원이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은 89만원이다. 그러나 추정소득이나 간주 부양비 등으로 생계급여가 깎이고 4인가족 평균 지급되는 금액은 40만원 수준인 것이다.

최옥란 열사는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바뀌나가기 위해 농성투쟁을 결의했다.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는 것이었다. 즉, 최옥란 열사처럼 장애인이 있는 가구나, 환자가 있는 가구, 노인, 아동 등 가구의 유형별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달리해야 하며, 추정소득이나 간주부양비를 폐지하여 그나마 책정된 현금급여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주된 요구였다.

“제가 이렇게 명동성당에서 그것도 추운 겨울에 텐트농성을 결심한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부터 입니다. 수많은 수급자가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말도 안 되는 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저에게 한편으로 힘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저와 같은 행

동으로 표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정부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 벌써 두 명의 수급권자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 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최옥란 열사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12월, 천막도 칠 수 없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녀는 한달 이상의 투쟁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단체들의 역량과 조건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경험으로 체득한 듯했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최옥란 열사처럼 살아갈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생계비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그나마의 수급권을 박탈당할까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생 계비까지 반납했던 것이다. 그녀는 순간순간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몸으로 보여줬다. 최옥란 열사는 자신의 투쟁이 자신과 같은 많은 가난한 이들의 투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고 있었다. 자신은 분노를 표출할 뿐이지만 이러한 분노들이 모여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옥란 열사의 투쟁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기초법의 문제를 당사자가 나서서 제기한 첫 번째 투쟁이었다. 기초법의 문제가 학자들을 통해 수없이 확인되었음에도, 그나마 법 제정의 의미에 무게를 두며, 선불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지 못했던 것이다. 최옥란 열사의 투쟁으로 수급권자의 삶을 통해 제기되었고, 운동진영에서도 새로운 연대를 구성하게 된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기초법 연석회의)는 최옥란 열사의 농성투쟁 이후 일상적으로 기초법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구성된 연대단위이며, 2003년 기초법 제도개선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최옥란 열사의 삶과 투쟁

최옥란 열사는 어릴적 열병과 경기로 인해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그녀는 어릴적 혼자서 일어설 수도 없었으나,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험없는 노력으로 스스로 일어서고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한다. 공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음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의지로 남들보다 2년늦게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중간에 그만둘 수 밖에 없던 학교 대신 검정고시를 위한 학

원과 재활학교 등을 꾸준히 다니며 스스로의 배움을 넓혀갔고 세상에 대한 시야도 넓혀갔다.

그녀는 울림터를 통해 장애해방투쟁에 함께하게 되며, 이후 뇌성마비장애인 단체인 '브름'의 창립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게 된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이혼이후 그녀는 청계천에서 노점으로 생활했으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노점을 포기하고 수급자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운동으로의 결합은 지속되었고, 특히 2000년 오이도 추락사건으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연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투쟁하는 삶이었다. 그 투쟁은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나 기초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만이 아니라, 장애여성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에 모든 차별과 폭력에 대한 투쟁이었다. 유년시절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혼자 일어서는 연습부터 장애인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던 것,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던 것, 두 번의 낙태 후 어렵게 자식을 낳고도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기르지 못하고 중국에는 양육권까지 포기해야 했던 그녀의 평생의 과정.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지독하게 살아야 했던 노점상 시절과 그리고 결국 생계를 유지할 방법도, 아이를 찾을 방법도 찾지 못한채 음독해야 했던 그녀. 자살기도 이후 타들어가는 식도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서도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내었으나, 결국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했던 그녀의 삶.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여성, 어머니, 노점상, 수급권자로서 그녀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 표상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다기 보다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실천했던 여성이었다.

최옥란 열사는 이혼 이후 아들을 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2001년 농성 마지막날, 최옥란 열사는 아들을 보기 위해 학교에 갔다. 그러나 아들을 볼 수 없었다. 한달에 한번 정해진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농성이후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했다. 법적인 절차들을 확인했고, 자신에게 부양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수급권자인 최옥란 열사에게 새로운 소득으로 잡혔고, 이에 대한 조사통지가 날아왔다. 수급권이 탈락되면, 당장의 생활은 물론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아들의 양육권을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된 최옥란 열사는 절망하여 음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열사는 양육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의 문제와 제도적인 한계도 어려움이었으나, 더욱 힘든 과정은 주변의 인식이었다. 최저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장애여성이 아이를

르는 것보다 아이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새엄마와 아빠가 기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열사는 단순히 엄마이기에 자신의 아이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이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가 불편하지 않게 엄마를 보호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대해 봉사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편에 대한 인식, 연대를 통해서 도리어 사람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생존권을 건 수급권투쟁에서는 연대를 실현할 수 있었으나, 아이를 되찾는 양육권 문제에서는 선택을 아이에게 돌리며 그 결과를 인정할 것을 주변 사람들은 요구했다.

나가며

최옥란 열사의 삶은 그 누구도 정확히 객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또 다른 자화상이다. 장애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세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폭력들은, 제도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더욱 뿌리깊은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러한 크고 작은 폭력에 맞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평등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녀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쟁취를 위한 투쟁, 기초법 제도개선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투쟁 그리고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들.. 이러한 투쟁의 역사 속에 최옥란 열사는 우리곁에 있는 것이다. 또한 최옥란 열사의 삶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침없이' 실천해 나가는 삶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나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차별이며 이로 인해 가해지는 폭력들과의 투쟁인 것이다.